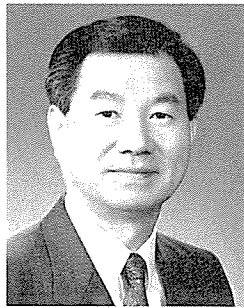


46년 창립-회원 5백50여명 규합 대한 병리학회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0월 당시 조선의학회 회장이던 尹日善씨를 중심으로 창립되어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 병리학의 발전을 주도해 온 대한병리학회.

초창기 30여명으로 발족된 이 학회는 현재 회원이 5백50여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한민족 병리학발전 50주년'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창립 50주년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池 堤 根
(서울의대 교수/병리학)

한국병리학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대한병리학회는 광복의 감격과 더불어 탄생, 그간 50성상을 지내오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대한병리학회는 창립후 반세기동안 우리나라 병리학의 발전을 주도해 오면서 연구, 진단병리 그리고 교육분야에 걸쳐 균형있는 발전을 이끌어 왔다. 지난 반세기동안

병리학은 의학의 중심학문으로서 이 나라 의학발전의 기초산실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초대회장에 尹日善박사

지난 1946년 10월1일 당시 조선의학회 회장이었던 尹日善씨를 중심으로 이제구, 이응열씨 등이 발기하여 창립총회를 개최, 초대회장에 윤일선씨를 선출하고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윤일선 초대회장은 이후 14년간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학회 기반조성에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47년 5월 조선의학협회 재창립때 윤일선 및 이제구씨가 대의원으로서 참여, 대한병리학회를 분과학회에 가입시켰으며, 61년부터는 학회조직을 확대하여 제1부 해부병리, 제2부 임상병리로 이원화하였다. 70년 이후 임상병리와 해부병리가 전문과목으로 법제화되면서 회세가 확장되었다.

초창기 30여명의 회원으로 발족하였던 학회는 79년 1백99명의 전문의로 확대되었으며, 80년 10월 임상병리가 분리되어 대한임상병리학회를 창립함에 따라 약 1백30명의 회원만 남게 되었다. 그 후 매년 해부병리전문회가 배출되어 현재 5백50명의 회원을 가진 학회로 발전하였다.

외과대학 졸업 후 조교로 입문하던 병리학에서 외과병리 즉 진단병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1974년부터는 인턴과정을 마친 다음 4년간의 전공의 수련과정을 밟도록 변경되었고 80년부터는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가 다시 90년 4년으로 연장되었다.

창립 다음 해인 1947년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학술대회를 1976년부터는 봄, 가을로 연 2회씩 개최하기 시작하여 회원들의 연구발표 및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1959년에 현미경표본진단에 관

한 월례토의로 시작한 월례슬라이드 집담회는 지난 38년동안 거의 중단없이 매월 1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병리조직학적 진단에 관한 활발한 토의를 함으로써 회원들의 진단능력과 연구의욕 고취에 크게 이바지하였는데 1989년부터는 2년마다 한·일 슬라이드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연구회별로 크고 작은 국제학술집담회를 열고 있다.

학회지, 작년부터 月刊誌로

1967년에는 「대한병리학회지」를 창간, 초기에는 연 2회씩 발간하다가 1877년부터 연 4회, 1991년부터는 연 6회, 그리고 1996년부터는 연 12회 즉 월간으로 발간하여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1995년까지 1천5백여편이 이 잡지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1990년 9월에는 72명의 회원이 집필에 참여하여 전국의 의과대학생의 병리학 교육의 표준이 된 병리학교과서를 펴냈고 1991년과 1994년 그리고 1997년에 증보판을 발행한 바 있다.

70년부터 1년 임기의 회장이 총무, 재무 및 간행부장을 두고 회무를 집행해 왔으나 규모가 커진 학회사업의 연속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 10월에 종래 회장제도로부터 이사장 중심제로 회칙을 개정하여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실질적 집행은 이사회가 하고 있다.

현재 대한병리학회는 부산지회, 호남지회 등 3개 지회로 조직되어 있다. 각 지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회 활동도 펼쳐고 있다. 지난 1988년 창립된 림프망 내계질환연구회를 비롯 신경병리학연구회, 소화기병리학연구회, 진단전자현미경연구회 등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병리학회는 현재 제51대 회장에 池堤根교수(서울의대)와 제3대 이사장에 崔宗相

교수(고려의대)를 중심으로 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병리학회는 현재 내적으로는 특수연구회들과 지방지회들이 발족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학문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해방되던 다음해인 1946년 10월에 소수의 병리학자들이 모여 처음으로 학회를 창립한 이래 학회 활동이 6·25로 인해 한동안 단절되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47년 12연제로 시작한 학술대회가 지금은 회원수가 약 5백50여명에 이르고 있고, 가을학술대회에는 약 3백여연제가 발표되는 활발한 학회가 되었으며 특정 세부전공 분야별로 연구활동을 하는 내실있는 학회로 성장했다.

50주년 학술대회 대성황이뤄

세계 무대에서 한국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국내 병리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학회의 학문기여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병리학계의 조직진단 병리분야도 괄목할만한 성과로 손꼽힌다.

대한병리학회는 지난해 10월 ‘한민족의 병리학 발전 50주년’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대한병리학회 창립 50주년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를 계기로 지난 세월 발전의 자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차원높은 학회의 역할 증대를 위해 학술활동의 변화와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를 앞두고 병리학의 폭을 보다 넓혀 세계적 도약을 꿈꾸고 있는 대한병리학회는 향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갈망하면서 향후 국제적 수준의 병리학회를 지향하면서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⑤7